

Ethylene, 1200달러로 140달러 폭등!

FOB Korea 1195-1205달러 형성 ... 한국 무역상 구매폭증이 주 원인

Ethylene 가격이 8월27일 FOB Korea 톤당 1195-1205달러로 140달러 폭등했다.

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특히 한국에서 무역상 및 최종 수요기업들의 구매가 폭증하면서 강세를 나타냈는데, LG석유화학의 BTD 라인이 폭발하면서 FOB 구매자들이 Spot 시장이 몰렸으며 2개 거래가 성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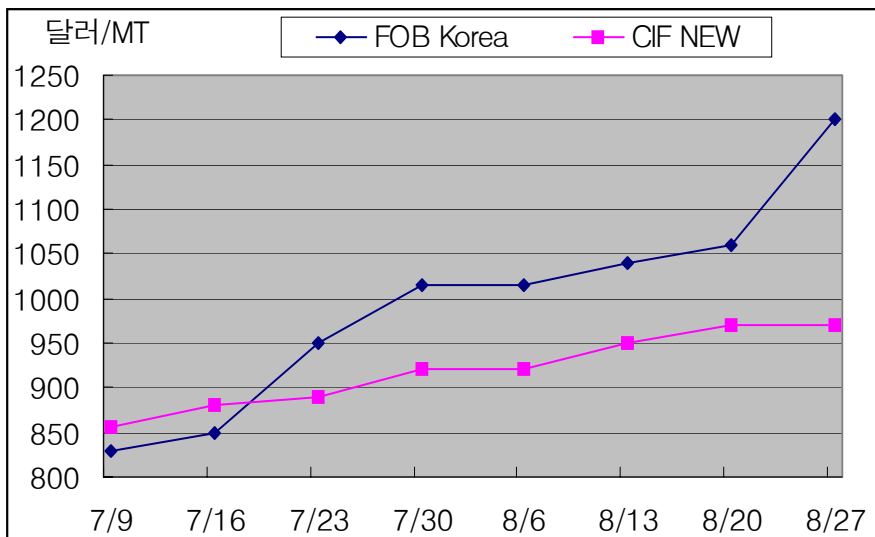
한국 에틸렌 메이커들이 FOB 톤당 1200톤 이상을 타겟으로 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며, 이후 10월 상순 거래물량이 FOB Korea 톤당 1195달러에 판매됐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10월 중순 거래물량이 FOB 톤당 1200달러에 공급됐으며, FOB 거래 이후 CFR 구매기업들이 구매에 나섰다.

한 MEG 메이커는 Tolling Deal의 일환으로 10월 중순 Cargo를 CFR 톤당 1200달러에 구매했으며 또 다시 1200달러를 요구했으나 판매의사가가격이 CFR Indonesia 톤당 1250달러로 상승했다.

타이완 구매기업들도 CFR 톤당 1250달러 및 1225달러에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은 정기 보수 시준과 더불어 CPC가 8월24일 태풍의 영향으로 3일 동안 No.3 크래커의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에틸렌 재고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제품 시장강세 또한 구매기업들을 에틸렌 시장으로 내몰았는데, MEG 가격은 CFR Asia 톤당 1200달러로 120달러 폭등했다.

Ethylene 가격추이



한편, 유럽 에틸렌 가격은 8월27일 CIF NEW 톤당 965-975달러로 지난주와 동일했으며 3/4분기 계약가격은 톤당 635유로를 나타냈다.

유럽 에틸렌 시장은 수급타이트의 영향으로 가격상승 압박이 지속되면서 2개 거래가 FD NEW 톤당 785달러에 성사됐으며 최근 에틸렌 Spot 가격이 800유로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31>